

복수의 업체 관심...입지·사업자 11월까지 결정

광주 첫 대기업 시내 면세점 개설 절차 어떻게 되나

광주 첫 면세점의 입지와 사업자는 이르면 11월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광주에 면세점 특화가 처음으로 생겨났다. 신세계가 수년 전 특급호텔과 연계한 면세점 운영에 의욕을 보였다. 점에 의욕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면세점) 신청 공고가 15일 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 거치며, 어떤 업체들 관심 보일까=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 면세점 선정은 관세청 주관하에 이뤄진다.

기재부로부터 면세점 신규 허용과 관련된 심의결과를 넘겨받은 관세청은 이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장소(면세점 입지)는 광주시내로 한정했고 일 반경쟁을 통해 면세점 업체 1곳을 선정한다. 특허기간은 5년이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운영인 자격요건과 매장 및 보관창고 규모 등의 시설 요건도 공지했다.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11월 선정,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

관세청 특허신청 모집 공고

11월 11~14일 신청 접수

전국에 시내면세점 26개

출국 내외국인만 이용 가능

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업체를 거명하지 않지만, 복수의 업체가 광주시내 면세점 사업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가 수년 전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소재한 광천동에 면세점과 특급호텔 신설 추진에 의욕을 보인 사례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2017년 15만6949명에서 2018년 32만6522명으로 108%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광주 방문시 주요 활동 1위에 '쇼핑'이 꼽힌 점(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도 고려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7년 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74.3%), 2위 '여가/휴가'(52.7%), 3위 '교육'(47.7% 이상 복수응답)으로 답할 정도로 관광객 관심이 컸다"며 면세점 업

체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내면세점 현황, 규모는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보세 판매장) 종류에는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다.

시내 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외국 물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이다. 공항 외 지역에 설치된 곳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국인(내외국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출국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금액은 미화 3000달러까지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 규모는 면세점 관련 고시에 따라 판매장은 331㎡, 창고는 66㎡ 이상이여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가 지금껏 허용한 총 면세점 특허 수는 60개다. 출국장 면세점 29개, 시내 면세점 26개, 지정 면세점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다.

시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26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서울에 있다. 부산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와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1개가 있다. 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경남에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이 1개씩 있다.



민주당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5일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 허가 전까지 광주와 충남·대전·경북·전남·전북·세종에는 시내 면세점이 한 개도 없었다. 제주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가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정동영 "5·18 특별법 이달내 반드시 처리"

평화당 지도부 5·18모지 참배 5·18광장서 최고위원회의도

정동영 대표 등 민주당평화당 지도부가 15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5·18 외국 처벌 특별법 제정, 망원 의원 제명 등의 5·18 3대 현안 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사흘 앞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황 대표는 5·18 망원 의원 징계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한 뒤 광주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 발목을 잡아 놓고, 학살을 정당화하는 당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와 고개를 숙일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묘지에 마련된 방명록에 "오월은 평등으로 가야 합니다. 오월은 평화로 가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지도부와 함께 현화했다. 5·18모지 참배를 마친 이들은 5·18 광장으로 이동해 옛 전남도청 복원 축구 농성을 하는 유가족을 위로한 뒤 "민주평화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옛 도청 앞 전막에서 열린 제18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5·18 진상을 밝힐 직접 증거는 보안사 창고에 들어있다"며 "그 창고를 열어젖힐 권한을 지닌 사

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안사 기밀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위 구성이 표류 중인 데 조기 구성과 가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5·18 외국 처벌 특별법을 5·18 이전에 처리하기로 4당이 합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 5월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진상규명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처벌법 개정을 확정해 다시는 역사 왜곡 망원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증언들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광주 북을)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3대 현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또 다시 5·18을 맞게 됐다"면서 "최우선적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18 당시 전두환 광주방문 사실, 시신 소각과 해양투기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망원 의원 제명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 3대 현안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망원 의원 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광주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기간 선수촌에 면세점 한시 운영 관세청 어제 모집 공고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선수촌대회 기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회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세청은 15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는 등 속도감 있게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15일 정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14일 다음달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8일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내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한시적(2012년 4월27~8월27일)으로 특

허가 부여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선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주관하에 업체 선정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대회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6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

고 신청 자격 등 요건과 품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발표한다.

면세점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아파트(옛 송정주공) 단지 내에 기념품 판매장, 미용실, 카페 등과 함께 들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7) BTS와 핑크

올 봄 패션계를 달궜던 색상으로 핑크색이 주목받고 있다. 자고로 핑크색은 여성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용감한 남성들의 핑크색 선호가 눈에 띄면서 색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어색해졌다. 특히 K-pop으로 세계를 들쭉이게 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가 뮤직비디

핑크색 관복 입은 3형제 '조선시대판 BTS'

오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7명 멤버 전원이 핑크 슈트를 맞춰 입고 등장하면서 BTS인기만큼이나 '핑크색 따라 입기'도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얼마 전 '그림 속 삶 이야기'를 주제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술관아카데미 특강에서 "BTS의 핑크 슈트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조선시대 관료들이 입었던 관복에서 그 유전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조선시대 당상관의 근무복은 홍화꽃 색인 핑크색으로 이미 시대를 앞서 그 멋진 색상을 소화해냈었다"고 설명해 눈길

을 끌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가인 이명기의 '제제공 73세 초상' 등을 비롯한 사대부 초상에서 핑크색 관복의 그림을 다수 만날 수 있는데 작가미상의 '조씨 삼형제 초상' (예산 중가 소장)에서는 삼형제가 모두 사모를 쓰고 핑크색 근무복을 입었다. 삼형제의 연한 핑크색 관복은 홍화꽃 잎을 따서 물들였던 천연염색으로 조선 시대에는 왕세자와 당상관 이상만 관복으로 입을 수 있었는데 독특한 형식의 형제 초상화에서 단채로 핑크 슈트를 입었던 BTS를 연상하게 한다.



'조씨 삼형제 초상'

이 초상화는 조민, 두, 강,의 세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경사를 기념해 그린 것으로 중앙에 큰 형, 좌우에 두 동생의 반신상을 배치한 삼각형 구도이다. 마치 오늘날 사진관에서 기념촬영한 가족사진을 떠올리게 할 만큼 현대적인 느낌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